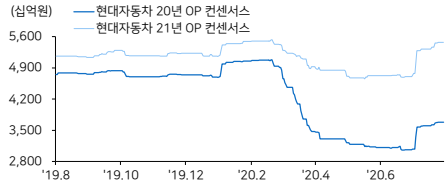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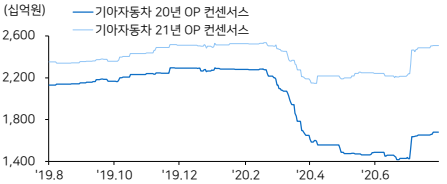
Daily Auto Check 2020. 8.27(T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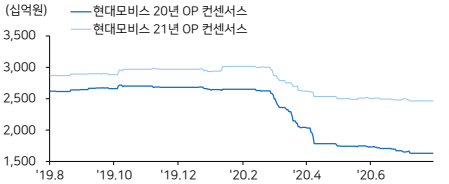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RA 이다빈
02.6454-4882
dabin.le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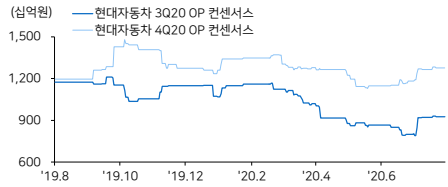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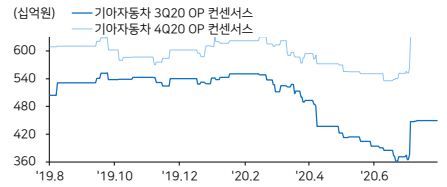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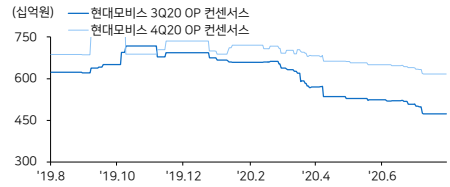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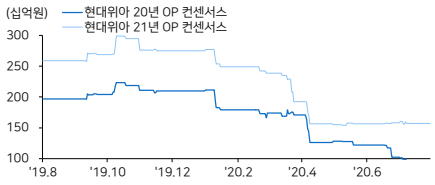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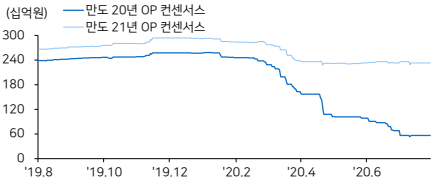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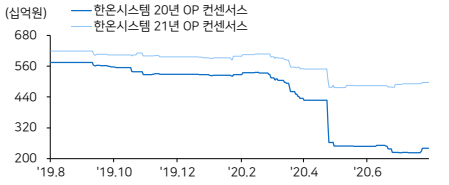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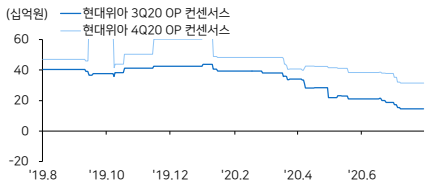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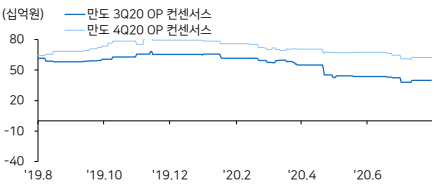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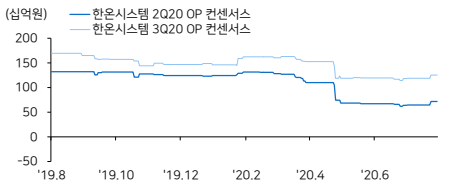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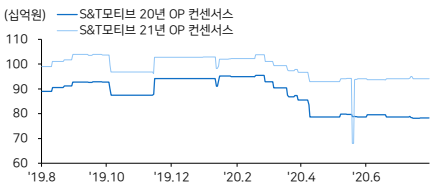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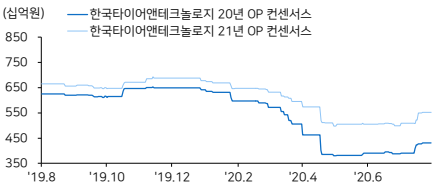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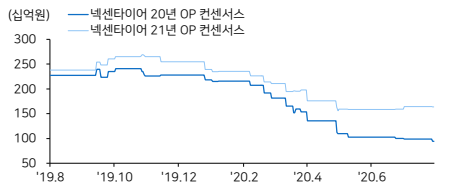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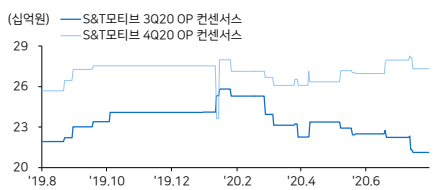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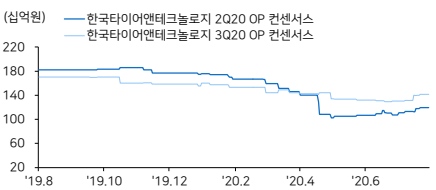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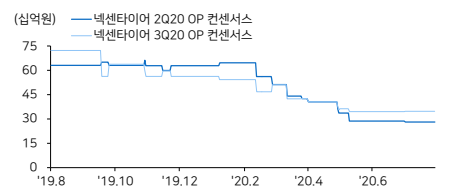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아이오닉 · 코나 일렉트릭 인니 출시 확정…전기차 선점 (더그루)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출시를 공식화했다. 현지 전기차 시장에 조기 안착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 현대차는 연내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코나 일렉트릭 등 전기차에 대한 인도네시아 출시 계획을 확정.
https://bit.ly/3b1LpOx

코나, 현대차 실험실?…내연기관·EV·N '광폭 라인업' (노컷뉴스)

현대차는 26일 오는 10월 출시될 코나의 부분변경 모델 이미지 일부를 공개. 이번 부분변경에서 주목할 부분은 현대차의 고성능차 브랜드인 'N'의 디자인과 주행감성을 닮은 'N라인(Line)'이 추가된다는 점.
https://bit.ly/3jexE27

현대차 '프로페시' 세계 첫 공개 또 무산...'EV트렌드코리아' 못 연다 (전자신문)

EV 트렌드 코리아 2020'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취소됨. 현대차는 행사에 맞춰 '프로페시'(아이오닉6) 세계 최초 공개와 첫 전기차 플랫폼 'E-GMP'도 소개할 예정이었지만,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짐.
https://bit.ly/2EnueLM

현대위아, 美에 최대 1억달러 규모 함포 부품 수출 (파이낸셜뉴스)

현대위아는 글로벌 방위산업체인 BAE시스템즈(BAE)와 10년간 최대 총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부품을 수출. '22년부터 5인치 함포의 '트러니언 지지대'와 '레버' 등 최대 106종의 함포 부품을 BAE 미국으로 10년 간 납품하게 됨.
https://bit.ly/2QuAqUG

현대차, 코로나 돌고 베트남 · 인도서 흥행 질주 (일간스포츠)

현대차 판매 실적이 코로나19 악재를 딛고 신흥 시장인 베트남과 인도에서까지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음. 지난달 미국과 함께 신흥 시장에서도 뚜렷한 개선을 보임에 따라 하반기 해외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음.
https://bit.ly/34FrfZF

기아차, 신형 쏘렌토 러시아서 본격 생산…점유율 회복 기대 (더그루)

기아자동차가 4세대 '쏘렌토'를 러시아에서 생산한다. 기아차는 신형 쏘렌토를 통해 러시아 점유율 회복에 나선다는 계획. 기아차는 러시아 아브토토르의 조립공장에서 4세대 쏘렌토에 대해 양산에 들어감.
https://bit.ly/2EF4s5a

현대모비스, 전기차 '광폭' 투자…생산능력 25만대로 확충 (머니투데이방송)

현대모비스가 평택에 세번째 전기차 모듈 공장을 증설하기로 함. 울산과 평택공장의 생산량만 해도 25만대에 달합니다. 테슬라에 이어 세계 2위 전기차 회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
https://bit.ly/2YF5jKx

중국 1위 CATL 배터리 단 전기차 계속 화재…"불량률 너무 높아" (한국경제TV)

CATL의 제품이 탑재된 전기차에서 잇따라 불이 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국내 배터리 업계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이 중국에 앞선다고 보고 격차를 더욱 늘리는데 힘을 쏟고 있음.
https://bit.ly/3hxHagl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